

# 충남도, 방산4사와 손잡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총력

K-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충남 방위산업 육성 등 추진  
전문인력 수급·연구 인프라 최적

대한민국 국방수도 충남이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글로벌 방산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충남도는 24일 국회에서 황명선 국회의원, 논산시를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주요 방산기업, 충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K-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충남 방위산업 육성,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과 기업은 방위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신규 사업 분야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체계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상생



방산혁신클러스터 업무협약식.

협력, 지역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등에 힘을 모은다.

이와 함께 국방기술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과 공동 활용, 방산혁신클러스터 등 국가사업 발굴 및 공모 대응, 예산 확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이번 협약이 방위사업청의 '2026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논산시 내동·연무읍 일원에 2030년까지 499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기반 국방로봇 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방산 특화 연구·시험·실증인프라 구축, 국방 신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창업 및 민수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은 충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K AIST,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양대 등 연구기관과 참여 기업들이 협력한다.

충남도는 논산이 방산혁신클러스터 최적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방대학교와 건양대 등 교육기관을 통해 AI·로봇 분야 전문 인력 수급이 가능하고, 인근 국방과학연구소와 대덕연구단지 등 연구 인프라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예정돼 있어 연구개발부터 실증, 생산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첨단 방산기술이 실전 무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증 환경과 정밀 제조 기반이 필수"라며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의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논산을 AI 국방로봇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서울·부산·인천교육청

#### 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서울시교육청이 부산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을 공동 운영한다.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를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3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구축한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미래형 평가 체계 안착에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동 운영하는 시스템은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채움AI'다. 이 시스템은 서·논술형 평가의 자동 채점을 지원하는 도구로, 교과별 맞춤 채점과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이현진 기자

### 부산시

#### 광안대교, '어스아워' 캠페인

부산의 야경 명소 광안대교가 기후 위기 대응 메시지를 담아 잠시 불을 끈다.

부산시설공단은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주관하는 글로벌 환경 캠페인 '어스아워(Earth Hour)'에 동참해 오는 28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간 광안대교 경관 조명을 전면 소등한다.

어스아워는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가 동시에 불을 끄며 기후 위기 대응 의지를 표현하는 국제 행동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서울시, 2031년까지 역세권 325곳 직·주·락 활성화

### 장기전세주택 공급 규모 확대 간선도로변, 용도 상향 허용

서울시가 역세권 325곳 전체를 교통거점을 넘어 일자리·주거·문화·생활 SOC가 결합된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2031년까지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환승역 고밀 개발,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 개발까지 포함한 입체적 도시공간 재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 ◆ 개발 대상지 325개역 전체로

서울시는 기존 사업은 확대·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추가 발굴해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역세권활성화사업의 개발 대



홍제역 (서대문구 홍제동 298-9 일대) 조감도. /서울시

상지를 넓히고 공공기여 비율은 낮춰 사업성을 높인다. 지금까지는 중심지 안에 있는 153개 역에서만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서울 전체 325개 역세권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100곳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11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증가 용적률의 50%에서 30%로 낮춘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민

간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 ◆ 장기전세주택 입지범위 확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입지와 사업 속도를 중심으로 공급 체계를 손질한다.

대상지는 기존 역사와의 거리 기준 350m에서 500m까지 확대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도 포함한다. 또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통합해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은 기존보다 5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127곳 12만호에서 366곳 21만2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 방식으로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 서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업무·상업·주거·문화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참여를 늘리기 위해 오는 6월 대상지 선정 공모도 추진한다.

#### ◆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 용도 상향

서울시는 역세권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한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도 새로 도입한다.

이 사업은 청년창업·주거·상업·생활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해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공간 격차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설도 함께 공급한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hji@

## 나주시, 직류 전력망 실증센터 구축

### 총사업비 78억8000만원 투입 AC 한계 보완·분산형 전원 확대

전남 나주시가 정부의 차세대 전력망 구축 정책과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25. 11)에 발맞춰 직류 기반 전력 인프라 구축에 나서며 에너지 신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R&D' 사업의 일환인 '미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직류 기반 중전압 전력망(MVDC) 실증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한국전기술연구원,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남테크노파크도 공동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기술 개발과 실증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전력망 구축 정책과 연계해 기존 교류 중심(AC) 전력망의 한계를 보완하고 분산형 전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반 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21개월 동안 추진되며 총사업비 78억8000만원(국비 38억 8000만원, 지방비 40억원)이 투입된다.

나주시는 2026년 5월 신규 중전압 직류(MVDC) 실증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울산시, '고래수' 품질관리에 1525억 투입

### 정기점검·송수관로 복선화

울산시가 올해 총 1525억원을 들여 수도물 '고래수'의 품질 관리와 공급 안정성 강화에 나선다. 기후 위기에 따른 상수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노후 시설 개선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수질 관리는 법정 60개 항목과 감시 173개 항목 등 총 233개 항목에 대해 정기 점검을 진행하고, 미세 플라스틱 등 미규제 신종 물질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회야계통과 천상계통(1.0km)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고, 유수율이 낮은 블록 52개소에 대한 밸브 조사와 기능 진단도 진행한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비상 식수대응 체계도 갖는다. 총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천상정수장 내 '고래수병입센터'를 구축, 오는 4월 완공 예정이다. 연간 50만 병 생산이 가능한 자동화 설비를 통해 단수 등 비상 상황에 긴급 식수를 공급하고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디지털 전환도 병행된다. 올해까지 스마트 원격점검기를 누계 3만 560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모바일 알림톡·이메일 전자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자동납부 추가 출금' 기능도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특·시 최초로 AI 기반 채팅로봇 '물동이'와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24시간 민원 상담과 요금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 경남도

#### 지방정부 적극행정 최우수 기관

경남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우수기관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수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 이행 성과 등 5대 항목 18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실행 계획 수립부터 성과 보상까지 적극행정 추진 체계 전반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다.

현장 밀착형 정책이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의령군 내 농촌마을 239개소를 전수 조사해 만든 '농촌마을 골든타임 길라잡이'는 소방차 현장 도착 시간을 40%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하동군

####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하동군이 오는 27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병원·시설 입소 없이 살던 곳에서 의료·복지·주거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 돌봄 체계를 지역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8억 4000만원으로, 1200여 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업은 일상생활·보건의료·주거·건강관리 등 5개 분야 15개 세부 사업으로 짜여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 외자와 퇴원 환자 등 기존 복지망 바깥에 놓인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